

일·EU 경제동반자협정(EPA) 기본합의와 시사점

조동희 구미·유라시아본부 유럽팀 부연구위원 (dhjoe@kiep.go.kr, Tel: 044-414-1123)

오태현 구미·유라시아본부 유럽팀 전문연구원 (asroc101@kiep.go.kr, Tel: 044-414-1159)

이형근 아시아태평양본부 일본팀 선임연구원 (hklee@kiep.go.kr, Tel: 044-414-1069)

이정은 아시아태평양본부 일본팀 연구원 (leeje@kiep.go.kr, Tel: 044-414-1236)

김영귀 무역통상본부 지역무역협정팀 연구위원 (yggkim@kiep.go.kr, Tel: 044-414-1188)

차 례

1. 일·EU EPA 협상 경과
2. 기본합의의 핵심 내용
3. 일·EU 교역관계 및 주요 품목별 양측 시장 내 한국과의 경합 정도
4. 일·EU EPA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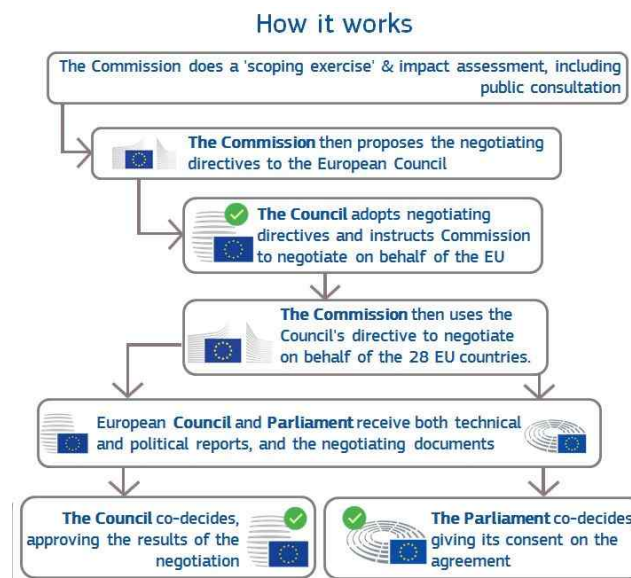
- ▶ 2013년 협상 개시 이래 양측은 18회의 공식협상을 거쳐 2017년 7월 6일 일·EU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기본합의(agreement in principle)를 발표
 - 자동차(EU), 치즈(일) 등 민감품목으로 인해 협상이 길어졌으나 이 품목들에 대해서도 상당한 합의를 이룸.
 - 미국과의 교역관계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측은 G20 정상회의의 목전에 기본합의를 발표함으로써 미국 발 보호주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자 하였음.
- ▶ 일본과 EU는 EPA 발효 즉시 각각 86% 및 96%, 15년 내 각각 97% 및 99%의 품목에 대한 관세를 폐지하고, 주요 산업에서 동일한 국제표준을 따르는 등 비관세장벽도 폐지하기로 합의함.
 - EU 측 민감품목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경우 평균 8.66%인 대일 수입관세를 발표 즉시~7년 내에 걸쳐 폐지하고, 일본 측 민감품목인 농산물 및 가공농산품의 경우 품목에 따라 발효 시~15년 내 폐지·인하하기로 합의
 - 또한 일본은 자동차, 의약품, 섬유 등의 산업에서 EU가 따르고 있는 국제표준 및 기술규제를 따르기로 하는 등 EU 기업계에서 강하게 요구해온 비관세장벽 폐지에도 합의하였음.
- ▶ 이 기본합의는 현재까지 합의된 사항에 대한 발표로서 양측은 EPA의 연내 체결 및 2019년 초 발효를 목표로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투자분쟁 해결절차, 규제 협력방안 등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주요 항목에 대한 협상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고, 민감품목에 대한 내부 불만을 완화하는 과제가 남아 있음.
 - 2014년 8월 협상이 완료된 EU·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의 EU 내 절차가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발효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음.
- ▶ 일·EU EPA가 한국의 대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나 대EU 수출 주요 품목인 승용차, 자동차부품, 전자집적회로 등에서는 경합 정도가 높은 일본의 경쟁력 강화로 무역전환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한국은 일본시장에서 EU와의 경합 정도가 낮은 반면 EU 시장에서는 주요 수출품목에서 일본과 상당한 경쟁 관계에 있으므로, 해당 상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철폐는 한국의 상대적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
 - 반면 중간재 수출 확대, 일·EU 간 규제 조화 및 호환성 개선에 따른 일본시장에의 접근성 개선과 한·EU 활용도 제고 등의 긍정적 영향도 기대할 수 있음.

1. 일·EU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협상 경과

■ 2011년 제20차 연례 일·EU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일·EU 교역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위하여 포괄적 FTA 혹은 EPA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

- 2000년대 초반부터 일·EU 간 양자교역환경 개선에 대한 양측 정부 간 논의가 꾸준히 있었으나 효과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는데, 2010년대 초반 양측 기업계는 이를 일·EU 교역량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였음.¹⁾
- 특히 일본 기업계는 한·EU FTA가 일본의 대EU 교역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EU FTA 체결을 요구²⁾
- 이에 2010년 제19차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양자 교역환경의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동연구단을 설치하고 연구단의 제안을 바탕으로 2011년 제20차 정상회담에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
- 공동연구단 조사 결과 일본과 EU의 이해관계자 대다수가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일·EU FTA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DG Trade 2011)에 따라 양측은 포괄적인 일·EU FTA 협상 개시에 합의하고 이를 위한 공식절차에 돌입함(그림 1 참고).

그림 1. EU 측 무역협정 추진 공식절차



자료: European Commission, <http://ec.europa.eu/trade/policy/in-focus/eu-japan-economic-partnership-agreement/meetings-and-documents>(검색일: 2017. 7. 10).

1) EBC(2010), "Message to the EU-Japan Summit, 28 April 2010: The Future of EU-Japan Relations," European Business Council in Japan.
 2) DG Trade(2011), "Summaries of contributions to the Public Consultation on: 'The future of EU Japan trade and economic relations'," European Commission.

■ **영향평가 결과 일·EU FTA가 양측 모두에 이익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2013년 3월 25일 협상이 시작됨.**

- European Commission(2012)에 따르면 일·EU FTA는 2020년 기준 EU와 일본의 총수출과 양자 간 수출을 모두 증가시킬 전망(표 1 참고)³⁾
- 특히 'EU → 일본' 수출은 가공식품, 화학제품, 기타 운송장비, 전기기기 등에서 가장 크게 증가할 전망이고, '일본 → EU' 수출은 가공식품, 기타 운송장비, 기타 기계, 자동차 등에서 가장 크게 증가할 전망(표 2 참고)

표 1. 일·EU FTA 영향평가 결과: 집계변수

변수	EU	일본
총수출	1.20~6.70% 증가	3.84~7.39% 증가
양자 간 수출	22.6~32.7% 증가	17.1~23.5% 증가

주: European Commission(2012)이 FTA의 수준에 따라 고려한 4가지 시나리오 중 최소값~최대값의 범위임.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2).

표 2. 일·EU FTA 영향평가 결과: 양자간 수출 증가 전망 상위 산업

EU → 일본	가공식품 (182~204%)	화학제품 (22~53%)	기타운송장비 (21~54%)	전기기기 (8~44%)
일본 → EU	가공식품 (37~76%)	기타운송장비 (31~57%)	기타기계 (21~35%)	자동차 (25~31%)

주: European Commission(2012)이 FTA의 수준에 따라 고려한 4가지 시나리오 중 최소값~최대값의 범위임.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2).

- 이러한 긍정적 전망을 바탕으로 2012년 11월 29일 EU각료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가 EU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협상 개시를 지시하여 2013년 3월 25일 EU집행위원회가 협상 개시를 선언⁴⁾

■ **2013년 4월 제1차 협상 이래 양측은 4년간 18회의 공식협상을 거쳐 2017년 7월 6일 기본합의(agreement in principle)를 발표**

- 이 기본합의는 현재까지 합의된 사항에 대한 발표로서, EPA 자체의 체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양측은 EPA의 연내 체결 및 2019년 초 발효를 목표로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자동차(EU), 치즈(일) 등 양측 국내 생산자들에게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는 품목에 대한 합의의 난항으로 협상이 길어졌으나, 이 민감품목들에 대해서도 상당한 합의가 이루어짐.
- 반면 투자분쟁해결, 비관세장벽 통제를 위한 규제협력 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 G20 정상회의(2017. 7. 7~8)의 목전에 기본합의를 발표함으로써 양측은 미국발 보호주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자 하였음.

3) European Commission(2012), "Impact Assessment Report on EU-Japan Trade Relations,"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4) EU 각료이사회는 각 회원국을 대표하는 장관들로 구성되는 최고의결기구로서 EU 차원의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EU집행위원회에 위임함.

- 일본은 미국의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탈퇴로, EU는 미국과의 TTIP(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협상 정체로 각각 미국과의 교역관계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또한 일본은 EU와의 EPA를 통해 미·일 FTA 협상에서의 협상력 제고와 아베 정부의 지지율 개선도 꾀하였음.

2. 기본합의의 핵심 내용

■ 일본과 EU는 EPA 발효 즉시 각각 86% 및 96%, 15년 내 각각 97% 및 99%의 품목(tariff lines)에 대한 수입관세를 폐지하기로 합의

- 양국 간 관세는 최혜국대우(MFN: Most-Favored Nation)에 따라 평균적으로 이미 낮은 수준으로, 관세 인하·폐지에 대한 협상은 EU 내 자동차시장, 일본 내 농산품시장 등 양측이 상당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민감품목에 집중되었음.
- 양국 간 무역가중평균관세율(trade weighted tariff)은 일본이 1.7%, EU가 3.4%에 불과함(European Commission 2012).
- 일본의 관세폐지 범위가 EU보다 낮은 것은 일본이 비관세장벽 폐지에 대한 EU 측 요구를 수용한 데 대한 반대급부임.
- 양측은 민감품목에 대해 [표 3]과 같이 관세 인하·폐지에 합의
- 반면 쌀, 해조류 등 일부 민감품목은 관세 인하·폐지 대상에서 제외시킴.

표 3. 민감품목에 대한 기본합의의 관세 인하·폐지 주요 내용

일본 → EU 민감품목: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EU → 일본 민감 품목: 농산품 및 가공농산품		
품목	현행	합의 내용	품목	현행	합의 내용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평균 8.66%	발효 시~7년 내 폐지	돼지고기	평균 4.3%	품질별 10년 내 폐지 혹은 인하
			소고기	38.5%	15년 내 9%로 인하
			수산물(참다랑어, 고등어 등)	최고 10%	5~15년 내 폐지
			와인 및 주류	15%	발효 시 폐지
			치즈	최고 28.9%	종류별 15년 내 폐지 혹은 수량별 차등 부과(tariff rate quota)
			파스타	최고 24%	10년 내 폐지
			초콜릿	최고 30%	10년 내 폐지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2, 2017a, 2017b, 2017c).⁵⁾

5) European Commission(2017a), "EU-Japan EPA - The Agreement in Principle," <http://trade.ec.europa.eu/doclib/html/155693.htm> (검색일: 2017. 7. 12); European Commission(2017b), "Eu-Japa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http://trade.ec.europa.eu/doclib/html/155722.htm>(검색일: 2017. 7. 12); European Commission(2017c), "An introduction to the EU-Japa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Agriculture," <http://trade.ec.europa.eu/doclib/html/155715.htm>(검색일: 2017. 7. 12).

- 양측은 또한 자동차, 전자, 의약, 섬유, 화학 등의 산업에서 동일한 국제표준 및 기술규제를 따르기로 하는 등 상당한 비관세장벽 폐지에도 합의함.
 - 비관세장벽 폐지는 EU 기업계에서 강하게 요구해온 사항으로, 자동차산업의 경우 일본의 비관세장벽은 EU의 대일 수출에 12.5%의 추가적 관세에 해당하는 부담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European Commission 2012).
 - 일본은 자동차, 의약품, 섬유 등의 산업에서 EU가 따르고 있는 국제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따르기로 합의
 - 대표적으로 자동차는 UN ECE(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국제표준, 의약품은 International Council on Harmonisation of Technical Requirements for Pharmaceuticals for Human Use(ICH) 가이드라인을 따르기로 합의하였음.

- 한편 이 기본합의는 현재까지 합의된 내용에 대한 발표로서 EPA 자체의 체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양측은 EPA의 연내체결 및 2019년 초 발효를 목표로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협상이 완료되면 양측은 최종 협정문의 자국어 번역, 법률 검토, 행정부 승인 및 의회 비준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
 - EU의 경우 24개 EU 공용어 각각에 대한 번역과 개별 회원국 행정부의 승인을 거쳐야 하고, 최종 협정문의 내용에 따라 유럽의회 단독 비준 혹은 유럽의회-회원국 의회 공동 비준을 거쳐야 하므로 협상 완료로부터 발효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캐나다·EU 자유무역협정인 CETA(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의 경우 2014년 8월 협상이 완료되었으나 2016년 10월에 이르러서야 회원국 행정부의 승인이 완료되었고, 현재까지도 회원국 의회 비준이 진행 중임.

- 향후 협상의 주요 의제는 양국간 투자분쟁해결절차, 규제 협력방안 등이 될 전망이고, 의회 비준을 위하여 민감품목에 대한 양측 내부 불만을 완화하는 과제가 남아 있음.
 - 기본합의는 양국간 투자자유화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포함하고 있으나, 투자자유화의 필요조건인 투자분쟁해결절차 등의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 EU 측은 투자분쟁해결절차로서 기존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제도 대신 투자법원(ICS: Investment Court System)을 설립할 것을 강하게 제안하였으나 아직 합의되지는 않았음.
 - CETA와 TTIP의 투자분쟁해결절차도 EU 측의 요구로 ICS가 채택됨.
 - 또한 일·EU 교역의 주된 걸림돌이자 금번 EPA의 주요 협상영역인 비관세장벽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EU 측은 양측 정부 대표단으로 구성된 규제협력위원회(RCC: Regulatory Cooperation Committee)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아직 합의되지 않았음.
 - RCC의 주요 활동은 정보 및 모범사례 교환, 규제당국간 협력분야 발굴, 국제표준 선정 시 일·EU 협력 강화 등이 될 전망
 - 한편 일본정부는 농업단체의 불만을 완화하기 위해 축산농가 등 일·EU EPA 피해 예상집단에 대한 종합

적인 지원책을 2017년 가을까지 마련하고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2017년 12월에 편성할 계획임.

- 구체적인 지원책으로는 치즈농가 보조금 인상(현재 10.56엔/kg), 양돈농가 보전금 비율 인상(현재 80% → 90%) 등이 있음.
- EU 측은 이해당사자와의 소통 강화와 대응책 마련을 위해 통상 담당 집행위원과 일·EU EPA 협상대표가 유럽노동조합총연맹(European Trade Union Confederation), 유럽소비자기관(European Consumer Organisation) 등과 면담을 해왔고, 유럽경제사회위원회(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를 통해 이해당사자들과의 공청회도 개최하고 있음.

표 4. 일·EU EPA 기본합의의 요지(일본 외무성 발표)

분야	주요 내용
I. 의의	<p>1. 전략적 의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주의적인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일본과 EU가 자유무역의 기수로서 역할하겠다는 강한 정치적 의사를 표명한 것은 자랑할 만한 성과 <p>2. 경제적 의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세계 GDP의 28%, 무역의 37%를 차지하는 거대경제권이 탄생 • EPA는 무역·투자 활성화, 고용창출, 기업경쟁력 강화 등 쌍방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고, 일본 입장에서 EU와의 전략적 관계 강화, 일본의 경제성장에 중요한 기동으로서 역할
II. 시장	<p>1. 상품시장 접근</p> <p>〈일본시장에 대한 접근〉</p> <p>① 농림수산물</p> <p>[쌀] 관세 인하·철폐 등에서의 제외를 확보 [보리] 현행의 국가무역제도, 규모의 세율을 유지. 관세할당규모(총수입량의 약 0.005%)를 설정 [설탕] 현행의 설탕가격 조정제도를 유지 [돼지고기] 차액관세제도를 유지. 10년의 관세인하기간과 세이프가드를 확보. 실시기준은 5년째에 6만 3,000톤 → 10년째에 10만 5,000톤 [소고기] 관세를 16년째에 9%로 인하, 세이프가드를 확보. 실시기준은 1년도 4만 3,500톤 → 16년째 5만 3,195톤 [유제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지분유, 버터 등: 국가무역을 유지, 민간무역에 의한 EU 할당규모를 설정. 1년도에 생우유 환산으로 1만 2,857톤 → 6년째에 1만 5,000톤 • 치즈: [소프트치즈] 횡단적인 관세 할당 적용. 할당규모 내 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16년째에 무관세. 할당 수량은 국산의 생산 확대와 양립할 수 있는 범위 내로 함. 1년도 2만 톤 → 16년째 3만 1,000톤 16년째 이후는 국내 소비 동향을 고려해 설정. [하드치즈 및 크림치즈(유지방 45% 이하) 등] 16년째에 철폐 <p>[바나나, 초코과자] 11년째에 관세철폐 [임산물] 구조용 집성재(Structural Glued Laminated Timber) 등 10개 품목은 단계적으로 8년째에 관세철폐 [수산물] 해조류는 관세철폐 등에서 제외. 전갱이·고등어는 16년째에 철폐 등. 어업보조금은 금지보조금의 대상에서 제외함. [주류] 와인의 관세는 즉시철폐. 청주·소주 등의 관세는 11년째에 철폐 [담배] 권연은 협정세율로 무관세. 살담배(shag) 및 가열식 담배의 관세는 6년째에 철폐. 잎담배는 11년째에 철폐 [소금] 정제염은 11년째에 관세철폐</p> <p>② 공업제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업제품(경제산업성 소관의 품목)에 대해 100% 관세철폐 • 발효시점에 공업제품의 무관세 비율이 77.3%에서 96.2%로 즉각 상승 • 화학공업제품, 섬유·섬유제품 등은 즉시철폐 • 피혁·신발은 11년째 또는 16년째에 철폐 <p>〈EU 시장에 대한 접근〉</p> <p>① 농림수산물</p> <p>[주류] 일본산 주류의 수출확대를 위해 관세철폐에 추가하여 수입규제의 철폐와 일본산 주류의 지리적 표시</p>

표 4. 계속

분야	주요 내용
II. 시장 접근	<p>[G] 보호를 확보. 주류 전체의 관세를 즉시철폐. ‘일본와인’의 수입규제(양조방법·수출증명) 철폐 [담배·소금] 모든 품목의 관세를 즉시철폐</p> <p>② 공업제품 [전체] • 공업제품(경제산업성 소관 품목)에 대해 100% 관세철폐 • 발효시점에 공업제품의 무관세 비율이 38.5%에서 81.7%로 상승 [승용차] 현행 세율 10%는 8년째에 철폐 [자동차부품] 자동차부품(기어박스의 현행 세율 3.0%~4.5%, 승용차 타이어의 현행 세율 4.5%, 엔진 관련 부품의 현행 세율 2.7% 등)과 관련해 무역액 기준으로 92.1%의 즉시철폐 [기타] 일반기계는 수출액 기준으로 86.6%, 화학공업제품은 88.4%, 전기기기는 91.2%의 즉시철폐</p> <p>2. 상품 이외의 시장 접근</p> <p>① 서비스 • 원칙적으로 모든 서비스분야를 자유화 대상으로 함. • EU 측이 자유화를 약속한 분야가 확대됨. • 일본은 기존의 국내법령에 추가하여 사회사업서비스(보건, 사회보장, 사회보험 등), 초등 및 중등 교육, 에너지산업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유보하여 필요한 정책의 재량을 확보</p> <p>② 자연인의 입국 및 일시적인 체재 • 양측은 설립목적의 상용방문자, 투자자, 기업 내 전근자, 계약에 기초한 서비스 제공자, 독립의 자유직업인, 단기의 상용방문자, 동행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해 약속</p> <p>③ 투자 • 원칙적으로 모든 분야를 자유화의 대상으로 함.</p> <p>④ 정부조달 • 정부조달 시장에서의 참가를 촉진하기 위해 일본·EU 쌍방이 시장접근의 개선을 실현함. • 일본·EU 모두 경쟁력을 가진 철도분야의 정부조달도 시장접근 확대를 위한 조치를 쌍방이 도입함.</p>
III. 규범 분야	<p>① 총칙 • 이 협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p> <p>② 상품무역 일반 규범 • 상품무역에 관해 양허표에 따라 관세를 철폐 또는 인하하는 것을 규정하고, 내국민대우, 수출입 제한, 재(再)제조상품의 취급, 수출입 허가절차, 수출입에 관한 수수료 및 절차, 수출입세 등 상품무역과 관련된 기본적인 규범에 대해 규정</p> <p>③ 무역구제 • 일시적인 긴급조치(세이프가드 조치)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 규정하고, 발동과 관련된 절차적 요건에 대해 규정. 또한 덤핑방지 조치 및 상계관세 조치에 대해서도 규정</p> <p>④ 원산지규정 • 수입제품이 관세의 철폐와 인하(관세상의 특혜조치)의 대상으로 되는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과 특혜대우를 받기 위한 절차 등에 대해 규정</p> <p>⑤ 세관·무역원활화</p> <p>⑥ 위생식물검역조치</p> <p>⑦ 무역의 기술적 장벽</p> <p>⑧ 서비스 • 국경간 서비스 제공에 관련해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MFN), 시장접근 등에 대해 규정</p> <p>⑨ 투자 • EU 회원국과의 사이에 투자보호규범을 신설함. 주요한 규정은 투자재산의 설립 단계 및 설립 후의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 등 • 투자자와 국가의 분쟁해결은 일본·EU 간 협의를 계속</p> <p>⑩ 전자상거래 • 일본·EU 간 전자적 송신에 대한 관세부과의 금지, 소스코드 공개요구의 금지</p> <p>⑪ 자본이동·지불·이동</p>

표 4. 계속

분야	주요 내용
Ⅲ. 규범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㉔ 반트러스트 및 기업결합 ㉕ 국유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유기업 등이 물품세와 서비스를 구입·판매할 경우 상업적인 고려에 따라 행동하는 것 등을 규정 ㉖ 보조금 ㉗ 지식재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품과 주류의 GI를 보호하기 위해 쌍방의 제도와 보호대상을 확인하고, 높은 수준의 보호에 필요한 절차 도입에 확인 ㉘ 정부조달 ㉙ 기업지배구조 ㉚ 무역과 지속가능한 개발 ㉛ 농업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물·식품의 무역촉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자료: 「日歐EPA合意 要旨」(2017. 7. 7), 日本經濟新聞: 「日EU經濟連携協定(EPA)に関するファクトシート」(2017. 7. 6), 外務省(보도자료).

3. 일·EU 교역관계 및 주요 품목별 양측 시장 내 한국과의 경합 정도

가. 일·EU 교역관계 현황

- 일·EU 무역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감소한 이후 등락을 반복하여 2016년 1,246억 유로 규모임.
- 양측은 서로의 주요 무역상대국으로 특히 일본의 대EU 의존도가 EU의 대일 의존도보다 현저하게 높고 (표 5 참고), 2000년대 후반까지 일본이 연간 400억 달러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를 누렸으나 2012년 동 일본대지진 이후 균형에 가깝게 유지됨.

표 5. 일본과 EU의 주요 상품무역상대국(2016년)

(단위: %)

순위	일본				순위	EU			
	수출		수입			수출		수입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1	미국	20.2	중국	25.8	1	미국	20.7	중국	20.2
2	중국	17.7	EU	12.3	2	중국	9.7	미국	14.5
3	EU	11.4	미국	11.1	3	스위스	8.2	스위스	7.1
					4	터키	4.5	러시아	7.0
					5	러시아	4.1	터키	3.9
					6	일본	3.3	일본	3.9

자료: JETRO, <https://www.jetro.go.jp/world/japan/stats/trade.html>(검색일: 2017. 7. 12); European Commission, <http://trade.ec.europa.eu/doclib/html/122530.htm>(검색일: 2017. 7. 12).

- 기계류 및 운송장비, 특히 자동차에서 양측의 수출입이 모두 활발한 가운데, EU의 대일 수출에는 의약품, 농산물 등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
- 2016년 기준 품목별 양자 간 교역을 보면(표 6 참고) 기계류 및 운송장비가 '일 → EU'에서 65.4%를 차지하여 'EU → 일'의 37.4%를 크게 상회하였고, 'EU → 일'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농산품과 의약품의 '일 → EU' 실적은 미미함.

표 6. 품목별 2016년 일·EU 무역규모

(단위: 백만 유로, %)

분류	일본 → EU		EU → 일본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음식 및 산 동물	213	0.3	3,754	6.5
음료와 담배	57	0.1	1,569	2.7
연료를 제외한 식용이 아닌 천연 원료	697	1.1	1,468	2.5
광물성 연료, 윤활유 및 관련 물질	149	0.2	213	0.4
동·식물성 기름, 지방 및 왁스	36	0.1	287	0.5
다른 곳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화학공업 생산품	6,750	10.1	14,502	25.0
(의약품)	(1,275)	(1.9)	(8,789)	(15.1)
주로 원료에 의해 제조된 물품	4,779	7.2	4,018	6.9
기계류 및 운송 장비	43,524	65.4	21,736	37.4
(운송 장비)	(18,003)	(27.1)	(11,497)	(19.8)
잡화	7,588	11.4	9,251	15.9
기타 다른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상품 및 거래	2,673	4.0	485	0.8

주: 표준국제무역분류(SITC: 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Rev.3) 기준.

자료: European Commission, http://trade.ec.europa.eu/doclib/docs/2006/september/tradoc_113403.pdf(검색일: 2017. 7. 12).

나. 주요 품목별 일본 내 한·EU 경합 정도

- 일본 내 수입시장에서 EU는 한국의 2배에 가까운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
- 일본 내 수입시장에서 한국과 EU는 각각 4~5% 및 10% 안팎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2010년 5.5%p → 2016년 8.3%p)
 - 일본 내 수입시장 규모는 2016년 약 65조 8,319억 엔(약 703조 8,941억 원)으로 이 중 EU가 2010년 9.6%, 2013년 9.4%, 2016년 12.4%를 점유한 반면 한국은 2010년 4.1%, 2013년 4.3%, 2016년 4.1%를 점유
 - 2010~16년 기간 일본의 총수입이 7.6% 증가하는 동안 대EU 수입은 28.4%로 크게 오른 반면 대(對)한 수입은 7.7% 증가하는 데 그침.
- EU의 대일 수출확대와 한국의 대일 수출감소가 동시에 발생하여 한·EU 간 일본시장 점유율 격차 확대를 유발하였음.

- EU의 대일 수출은 2009년 이래 증가추세에 있는 반면, 한국의 대일 수출은 아베노믹스에 따른 엔저현상 등으로 2011년 이후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음.

■ 반면 한국의 대일 수출 주요 품목에서 ① 일본시장 내 EU와의 경합 정도가 낮고, ② EU의 일본시장 점유율 역시 낮으므로, 일·EU EPA가 한국의 대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 일·EU EPA에 따른 무역전환효과를 가늠하기 위해 2016년 기준 한국의 대일 수출 상위 10개 품목(이하 '10대 품목', 표 7 및 그림 2 참고)에 대해 한국과 EU의 일본 내 수입시장 점유율을 살펴보았음.
- 10대 품목이 한국의 대일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데 반해 EU의 대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여 각국의 주력 수출품목이 겹치지 않고, 10대 품목 대부분에서 일본 내 수입시장 점유율도 한국이 월등히 높음.
- 한국의 대일 총수출에서 10대 품목은 60% 정도를 차지하는 반면 EU의 대일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에 그침.
- 10대 품목 중 자동차부품만이 EU의 대일 수출 상위 10개 품목에 포함됨.
- 10대 품목 중 자동차부품(EU 15%, 한국 9.7%)과 담배(EU 31.6%, 한국 12%)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서는 일본 내 수입시장 점유율에서 한국이 EU를 크게 상회함.

표 7. 일본의 대(對)한 및 대EU 수입(2016년 한국 기준 상위 10개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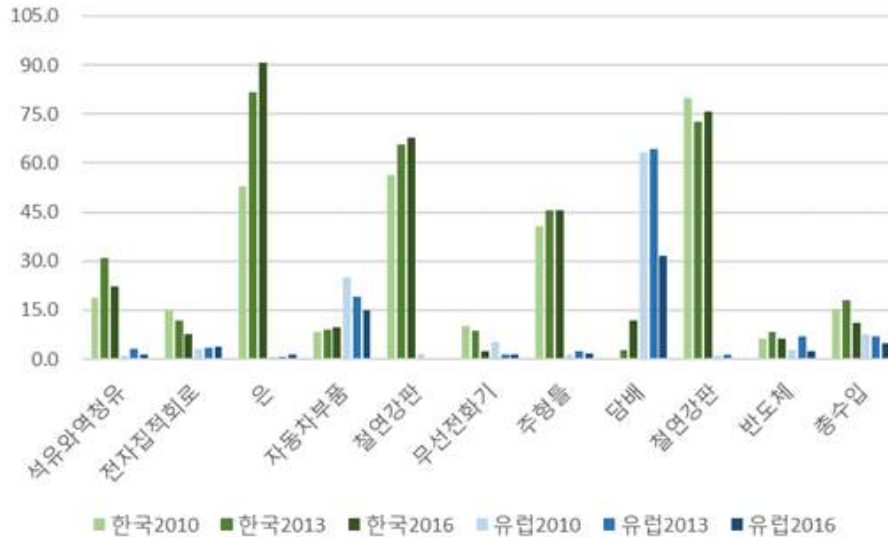
(단위: 억 엔)

순위	HS4단위	품목명	2016년		2013년		2010년	
			한국	EU	한국	EU	한국	EU
1	2710	석유와 역청유	2,272	136	8,111	787	3,093	179
2	8542	전자집적회로	1,417	687	1,922	538	2,648	591
3	7106	은	1,029	15	1,143	11	647	11
4	8708	자동차부품	799	1,240	620	1,331	400	1,221
5	7208	철연강판	681	0.4	753	0.3	651	22
6	8517	무선전화기	644	344	2,243	341	1,173	633
7	8480	주형틀	475	18	358	18	206	8
8	2402	담배	422	1,113	106	2,564	9	1,944
9	7210	철연강판	401	3	364	8	344	4
10	8541	반도체	394	150	678	567	207	98
일본의 10대 품목 총수입			8,535	3,706	16,298	6,166	9,379	4,711
일본의 양국으로부터의 총수입			27,138	81,467	34,898	76,462	25,053	58,296

자료: ITC Trade Map(검색일: 2017. 7. 9).

그림 2. 일본 수입시장 내 한국 및 EU의 점유율

(단위: %)



주: 1. 2016년 한국의 대일 수출 상위 10개 품목 기준.

2. 총수입은 일본 내 수입시장 전체 기준.

자료: ITC Trade Map(검색일: 2017. 7. 9).

- 10대 품목 대부분에 대한 관세 인하·철폐 여부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향후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으나, 일본의 비농산품에 대한 관세가 평균 1.1%로 이미 매우 낮은 편이므로 석유제품, 전자집적회로, 차량용 부품, 철강판 등에서 관세철폐 자체의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

■ 한편 EU에서 일본의 관세 인하·폐지를 강하게 요구한 5개 품목(치즈, 돈육, 파스타, 초콜릿, 와인)에서는 한국의 대일 수출이 매우 미미한 상황으로(표 8 참고), 일·EU EPA로 해당 품목의 경쟁열위는 더 악화될 전망

- 일본의 농산품 관세율은 평균 11.2%로 비농산품(1.1%)에 비해 매우 높음.
- 일본에서 치즈, 돼지고기, 와인의 대(對)한 수입은 전무하다시피한 상황
 - 돼지고기의 경우 2000년 이전 연간 3억 달러 규모의 대일 수출을 올린 ‘효자 품목’이었으나, 2000년 구제역 및 돼지열병 발생으로 대일 수출이 중단됨.
 - 2013~16년 동안 치즈, 돼지고기, 와인의 대한 수입은 통계에 보고되지도 않음(1,000엔 미만).
- 초콜릿의 대(對)한 수입은 완만한 상승세에 있으나, 파스타를 포함한 면류 수출은 감소세에 있음.
 - 일본(12.0%)은 중국(42.2%), 홍콩(14.1%)에 이은 한국의 3대 초콜릿 수출대상국이고(2015년 기준), 초콜릿 대일 수출은 2009년 26억 엔에서 2016년 40억 엔으로 약 14억 엔 증가하였음.⁶⁾
- 세계 4위 규모의 일본 내 농산품 수입시장에서 EU의 가격경쟁력이 상승할 경우, 최근 소폭이나마 증가하고 있는 한국 농산품의 대일 수출은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더욱 어려워질 전망

6)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6), 『2015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7), 『2016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표 8. 한국의 5개 품목(치즈, 돈육, 파스타, 초콜릿, 와인) 대일 수출 현황

(단위: 와인 천 엔, 그 외 억 엔)

품목명	HS 코드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치즈	0406	-	-	-	-	-	-	-
돼지고기	0203	-	-	-	-	-	-	-
와인	2204	0	239	718	0	0	0	0
파스타	1902	24	31	39	33	27	23	22
초콜릿	1806	26	30	32	37	33	36	42

자료: ITC Trade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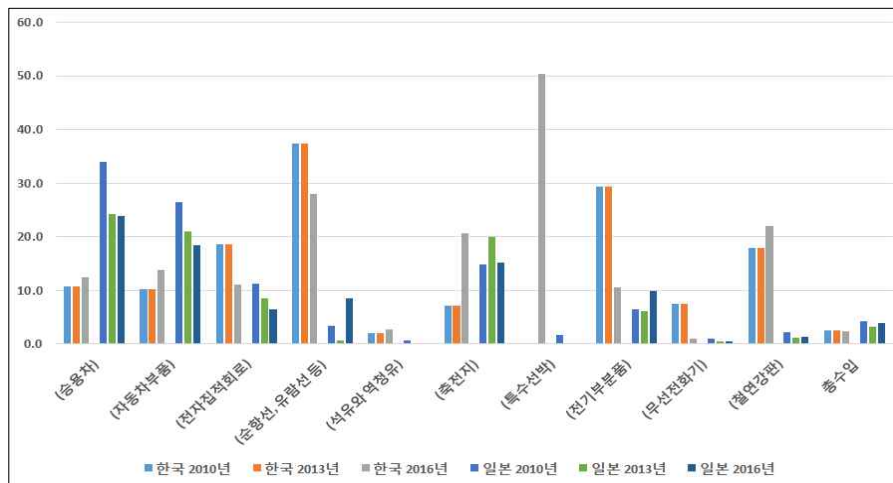
다. 주요 품목별 EU 내 한·일 경합 정도

■ 2011년 한·EU FTA 발효를 전후한 기간 동안 주요 품목별 EU 내 시장점유율에서 일본이 한국을 앞서고 있으나, 양국간 격차가 감소하는 추세

- EU 내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최근 큰 변화가 없었으나, 일본과의 점유율 격차는 2010년 1.8%p에서 2016년 1.4%p로 감소함.
- 2016년 기준 약 1조 7,000억 유로에 이르는 EU 내 (역외)수입시장에서 일본의 점유율은 2010년 4.3%, 2013년 3.3%, 2016년 3.8%를 기록한 반면 한국의 점유율은 같은 기간 각각 2.5%, 2.1%, 2.4%를 기록하였음.
- EU의 역외수입은 2010년 대비 2016년 11.3% 증가하였는데, 이 중 대(對)한 수입은 4.9% 증가한 반면 대일 수입은 0.7% 감소함.

그림 3. EU 수입시장 내 한국 및 일본의 점유율

(단위: %)



주: 1. 2016년 한국의 대EU 수출 상위 10개 품목 기준.

2. 총수입은 EU 내 수입시장 전체 기준.

자료: KITA(검색일: 2017. 7. 6).

■ 한국의 대EU 수출 주요 품목 중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서 일본과의 경합이 가장 첨예함.

- 2016년 기준 한국의 대EU 수출 상위 10개 품목(이하 '10대 품목') 중 상위 2개 품목인 승용차와 자동차 부품에서 일본의 점유율이 한국보다 현격히 높음(표 9 참고).
 - EU 내 승용차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12.5%(약 48억 유로)로 일본의 23.9%(약 91억 유로)에 현저히 뒤처지고, 자동차부품에서도 한국의 점유율은 13.8%(약 28억 유로)로 일본의 18.5%(약 38억 유로)에 뒤처짐.
- 반면 상위 3~10위 품목 중에는 전자집적회로 외에는 일본의 대EU 수출 상위 10개 품목과의 중복이 없고, 3~10위 품목 모두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일본을 크게 상회함.
 - EU 내 수입시장의 한국 점유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특수선박으로 50.4%에 이르며, 다음으로 순항선 및 유람선, 철연강판, 축전지에서 각각 28.0%, 22.1%, 20.7%를 점유

표 9. EU의 대(對)한 및 대일 수입(2016년 한국 기준 상위 10대 품목)

(단위: 백만 유로)

순위	HS4단위	품목명	2016년		2013년		2010년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1	8703	승용차	4,794	9,121	4,081	5,772	2,449	7,711
2	8708	자동차부품	2,832	3,799	1,833	3,212	1,283	3,337
3	8542	전자집적회로	1,893	1,105	1,322	1,134	3,143	1,903
4	8901	순항선 및 유람선 등	1,706	523	2,849	54	7,003	625
5	2710	석유와 역청유	1,302	49	1,569	154	1,129	344
6	8507	축전지	1,012	746	347	564	174	358
7	8905	특수선박	946	0	33	0	0	15
8	8529	전기부분품	797	746	1,511	445	3,544	778
9	8517	무선전화기	717	322	2,394	263	2,896	391
10	7210	철연강판	646	38	587	26	418	51
EU의 10개 품목 총수입			16,645	16,449	16,526	11,624	22,039	15,513
EU의 양국으로부터의 총수입			41,297	66,465	35,771	56,298	39,353	66,921

주: 음영처리된 품목은 일본의 대EU 수출 상위 10개 품목과 중복.
자료: KITA(검색일: 2017. 7. 6).

- 10대 품목 전체의 EU 내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2010년 12.1%에서 2013년 8.0%로 감소하여 2016년에는 일본(7.7%)과 유사한 7.8%에 이룸.
 - 한국의 시장점유율 감소는 한국기업의 현지 진출 및 현지 생산 확대와 EU의 경기침체에 따른 주요 수출품목의 수입수요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임.

■ 한편 일본의 대EU 수출 상위 10개 품목 중 한국의 10개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 중에서는 특수기계(건설 등) 외에는 한국의 점유율이 미미함(표 10 참고).

- 2016년 일본의 대EU 수출 상위 10개 품목 전체의 EU 내 수입시장 점유율은 일본이 37.2%로 한국(27.2%)을 크게 앞섬.

표 10. EU의 대(對)한 및 대일 수입규모(2016년 일본의 대EU 수출 상위 10개 품목)

(단위: 백만 유로, %)

순위	HS4단위	품목명	2016년			
			한국		일본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	8703	승용차	4,794	12.5	9,121	23.9
2	8708	자동차부품	2,832	13.8	3,799	18.5
3	8443	프린터	1,893	0.7	1,105	20.2
4	7108	금	1,706	0.2	523	4.0
5	8429	특수기계	1,302	22.2	49	50.0
6	8411	축전지	1,012	0.7	746	3.7
7	9018	특수선박	946	1.7	0	7.4
8	9027	전기부분품	797	1.2	746	21.2
9	8542	전자집적회로	717	11.0	322	6.4
10	8414	철연강판	646	5.3	38	16.7
EU의 10개 품목 총수입 및 비중			16,645	5.4	16,449	11.8

주: 음영처리된 품목은 한국의 대EU 수출 상위 10개 품목과 중복
자료: KITA(검색일: 2017. 7. 6).

4. 일·EU EPA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가. 거시경제적 효과⁷⁾

■ 일·EU EPA 발효 시 한국의 실질 GDP는 약 0.011~0.012%, 소비자후생은 약 1억 2,300만~1억 3,100만 달러 감소할 전망

- 일자리와 실질임금은 각각 약 0.0012~0.0013% 및 0.003% 감소할 전망
 - 2017년 경제활동인구 추정치인 2,670만 3,000명에 대입할 경우 일자리 감소분은 약 318~358개로 추정됨.
- 상기한 부정적 효과는 일·EU 간 교역확대에 따른 한국의 대일 및 대EU 교역 축소(무역전환), 한·EU FTA의 특혜이익 소실 등에 따른 것으로, 실제 피해규모는 EPA 이후 일본과 EU의 관세율 구조, 앞서 살펴본 각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 및 상대국과의 경합관계 등에 영향을 받을 것임.

■ 일본과 EU의 실질 GDP는 각각 0.26~0.271% 및 0.063~0.067%, 소비자 후생은 각각 118억 6,100만~122억 7,000만 달러 및 88억 7,300만~94억 4,500만 달러 증가할 전망

7) 추정방법은 [글상자 1] 참고.

- 일본과 EU의 고용은 각각 7만 7,934~8만 3,578명 및 5만 3,095~5만 6,354명 증가하고, 실질임금도 각각 0.308~0.330% 및 0.058~0.062% 상승할 것으로 추정됨.
- 고용증가분은 추정된 감소율을 일본과 EU의 2017년 경제활동인구 추정치(각각 6,329만 7,900명 및 2억 2,880만 7,600명)에 대입한 값

표 11. 일·EU EPA의 거시경제적 효과

	한국	일본	EU
실질 GDP(%)	△0.011~△0.012	0.26~0.271	0.063~0.067
소비자 후생(억 달러)	△1.23~△1.31	118.61~122.70	88.73~94.45
고용 증가(명)	△318~△358	77,934~83,578	53,095~56,354
실질임금 변화율(%)	△0.003~△0.003	0.308~0.330	0.058~0.062

주: 1. 고용효과는 Econ Map 2.4의 2017년 각국 경제활동인구 추정치를 사용하여 계산하였음.
2.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95% 시나리오~99% 시나리오' 순으로 표기.

글상자 1. 일·EU EPA의 거시경제적 효과 추정 방법

■ FTA 효과 분석에 널리 사용되는 연산가능일반균형(CGЕ: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모형 중 GTAP 모형을 이용하여 일·EU EPA로 인한 양국간 관세감축의 영향을 분석

- [분석모형] 퍼듀대학교가 개발한 GTAP 모형에, 고용효과를 모형 내에서 산출하기 위해 노동공급탄력성을 0.4로 가정한 노동공급함수를 반영
- [기본자료] 2011년을 기준연도로 하는 GTAP Database version 9를 사용했으며, 국가/지역은 한국, 일본, EU, 아세안, 페루, 터키, 인도, 베트남, 콜롬비아,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중국, 스위스, 노르웨이, 브라질, 대만, 기타 세계의 19개로 재분류하고 산업은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농수산업은 쌀, 곡물·과일 및 채소, 육류 및 낙농, 가공식품, 기타 농업, 수산업으로, 제조업은 채취업, 섬유·직물, 의복, 화학·고무·플라스틱, 철강, 비철금속, 자동차와 부품, 기타 수송기기, 전자, 기계, 기타 제조업 산업으로, 서비스는 공공서비스와 비공공서비스로 분류
- [자료업데이트] 기본자료를 2017년 기준으로 업데이트하기 위해 각 국가 및 지역의 경제성장률, 노동 및 인구 증가율 추세와 함께 한국의 기체결 FTA의 양허스케줄을 반영
- [분석시나리오] 일·EU EPA의 자유화율은 전체적으로 95% 이상이 될 전망(일부에서는 TPP 수준으로 평가)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95%와 99%(TPP의 자유화율) 개방시나리오를 분석
- [결과해석] 일·EU EPA가 없었을 경우 대비 일·EU EPA로 인한 변화율 또는 변화분으로 해석됨.
 - 소비자후생은 동등변화로 측정되었으며, 일·EU EPA가 없었을 때 가계가 구입했던 상품묶음을 일·EU EPA하에서 구매할 때의 차액에 해당함.⁸⁾

8) 소비자후생은 정책 실시로 인한 소득변화와 더불어 주어진 상품묶음의 가격변화에도 의존하기 때문에 실질 GDP와는 다른 측면에서 정책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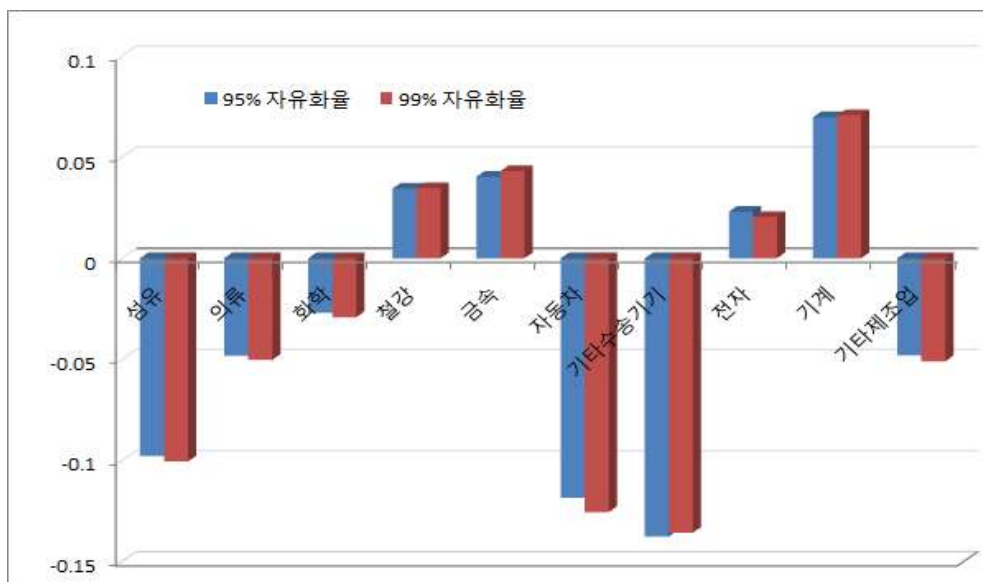
나. 산업별 효과

■ 일·EU EPA로 한국의 섬유, 의류, 화학, 자동차, 기타 수송기기, 기타 제조업의 생산은 감소하는 반면, 철강, 금속, 전자, 기계 등 산업의 생산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됨.

- 최종재 비중이 높은 산업의 경우 무역전환으로 대일 및 대EU 수출이 감소하여 국내생산도 감소하는 반면, 중간재 비중이 높은 산업은 무역전환으로 인한 수출감소를 중간재 수출확대가 상쇄시킬 전망
- 생산감소폭은 기타 수송기기($\Delta 0.138 \sim \Delta 0.136$), 자동차($\Delta 0.118 \sim \Delta 0.126$), 섬유($\Delta 0.098 \sim \Delta 0.1$), 의류($\Delta 0.48 \sim \Delta 0.05$) 순으로 나타남.
- 반면 기계($0.07 \sim 0.071$), 금속($0.04 \sim 0.043$), 철강($0.034 \sim 0.035$) 순으로 생산증가가 기대됨.

그림 4. 일·EU EPA가 한국의 주요 제조업 생산에 미칠 영향

(단위: % 변화)



다. 비관세장벽 효과

■ 일·EU EPA로 인한 비관세장벽의 완화, 규제 조화 및 호환성 개선 등은 한국경제에 부정적 무역효과와 긍정적 외부효과를 동시에 가져올 전망

- 규제 및 비관세장벽 완화 시 이에 따른 일·EU 교역 촉진으로, 양국간 관세철폐의 영향과 유사한 무역전환피해가 예상됨.
- 일본의 높은 비관세장벽은 외국기업의 영업비용을 증가시키고 시장접근을 제한하여 교역을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반면 일·EU 간 규제 조화 및 호환성 개선은 한국기업의 규제순응비용을 감소시켜 일본시장에의 접근성과 한·EU FTA 활용도를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됨.
- 한국기업의 대일 및 대EU 수출품목에서 수출상대국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규제의 조화 및 호환성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이중으로 지불되는 비용이 줄어드는 긍정적 외부효과도 기대됨. **KIEP**